

탄소 배출 25% 감소...새만금에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군산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실증 사업 거점 육성 내년 인프라 구축 뒤 2023년 스마트그린 서비스 제공

앞으로 산업지는 탄소 배출을 25% 이상 줄이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현재 조성 단계인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으로 새만금국가산단을 포함해 총 2-3곳이 조성된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 등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산단이다. 새만금은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혁신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새만금 산단은 올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으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2023년 기업 입주 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

?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다. 오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캠페인이다. 표로 스마트그린 산단의 확산 모델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매년 신규 산단(15-20곳)의 25%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지정해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단을 총 35개소 조성할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위치도.

익산시 나눔공간, '이동공간'으로 확대

오늘까지 원광 복지관 등 3곳에 저동 불편 이웃에 배달서비스도

익산시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나눔공간을 이동공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는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인 '이동공간'을 8일과 9일 운영한다. 이동공간은 29개 읍·면·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원광·부승·동산 사회복지관 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 곳을 통해 대기자들에게 기부 물품이 지원되며 저동이 불편한 위기가구의 경우 배달서비스도 시행한다. 나눔공간은 개장 이후 이용자가 늘어 현재 2600여명의 대기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 이용 가능 인원이 100여명으로 한정됨에 따라 대기자들이 모두 물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공간이 원활하게 운영되면 대기자들의 대기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공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대기자들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쌀과 라면, 화장지 등 선호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익산시 나눔공간 전경.

행복나눔마켓·뱅크는 지난 2개월여 동안 기부를 통해 모인 1억43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식품을 2860명의 위기가구에 지급했다. 이동공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총 5300여명의 시민들이 위기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익산시는 정부 긴급지원의 한계를 보완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

월1일 나눔공간 운영을 시작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동공간 운영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민과 밀착된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김호석 내장산골프앤리조트 회장, 정읍 감곡중에 1200만원

정읍 출생인 김호석 내장산골프앤리조트 회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읍시 감곡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쾌척했다. 김 회장은 지난 6일 내장산골프앤리조트에서 정읍 감곡중학교에 장학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김 회장은 1982년 대일개발을 창업한 뒤 사세를 확장하며 수십 운반부터 최종 처리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종합시스템을 갖춘 회사

다. 김 회장은 정읍지역 인재양성을 비롯해 내장산골프앤리조트를 개장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했다. 김 회장은 "후배들이 감곡중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한다면 지역사회와 동문들에게 큰 보람이 될 것"이라며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에 소중히 써 달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김호석 내장산골프앤리조트 회장 감곡중학교 후진 양성 장학금 기탁 금 12,000,000원 금 일천이백만원

올 여름 피서는 고창 선운산으로

물놀이장·폭포 등 수변시설 확충

화려한 수목과 아늑하기만 산세가 아름답기로 이름난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에 여름 관광객을 위한 수변시설이 확충된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선운산도립공원에 친환경 시스템이 적용된 물놀이시설이 완공됐으며 경관폭포는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고창군이 공원 내에 새로운 수변시설 조성에 나선 것은 선운산이 한해 2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임에도 그동안 여름철 관광객들을 위한 물놀이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한 고창군은 먼저 선운산 생태 숲 일원에 400m의 사냇물길을 만들었다. 선운천의 깨끗한 1급수 계곡물을 유입시켜 사냇물길로 흐르게 한 뒤 사냇천으로 유도·합류시키는 방식이며 사냇물길 중간에는 물놀이와 족욕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갖춰졌다. 선운산 도솔제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설계 중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사냇물길.

인 경관폭포는 40m 높이의 자연 암석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로 관광객들의 한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상대적 비수기로 여겨졌던 여름철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선운산도립공원을 대한민국 힐링 1번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백제 유적' 익산 토성 정비...탐방로 조성

오금산 서문지 석벽 노출

익산시와 문화재청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성 안팎에 대나무와 잡목이 백백해 지형이 훼손되고 있던 익산 토성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2016~2018년 일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서문지를 비롯한 서쪽 성벽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백제부터 고려에 이르는 유물을 수습했으며, 돌을 쌓아 올려 성벽을 만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정비계획을 세워 서문지 주변에 남아 있던 석벽 일부를 드러내 공개하고, 성 안팎의 잡목을 제거했으며 성 둘레 탐방로, 주차장, 성으로 오르는 길을 정비했다. (사진) 익산 토성은 해발 125m 오금산 정상에 있는데, 이번에 시야를 가리던 잡목을 제거하면서 성의 전



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있게 됐다. 또 북으로는 미륵산과 미륵사지, 동으로는 용화산, 서로는 용포 일대, 남으로는 왕궁리 유적을 볼 수 있게 됐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